

신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학문이다

이 세상의 말도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과학적인 말이 아닌 비과학적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년간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종교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진리구현이 종교이지, 진리구현을 못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사람의 죽는 시체가 썩어서 변하는 고로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갈 수 있어

오늘날 종교들은 종교 아닌 값을 하라고 영이 된 줄도 모르고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서 천당 가거나 극락세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이나 극락세계는 이 우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천당이 되는 예덴동산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무너졌고 마귀로 말미암아 점령당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무너진 고로 천당이나 극락세계는 없습니다. 없는 천당이나 극락세계 간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천당이 하늘쪽 대기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당을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천당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나 불경에 써 있습니다. 사람은 못 간다고 했는데 사람이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간다고 속이는 말을 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인 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고 한 말씀은 옛날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던 것처럼 하

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당, 극락세계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불교의 석가모니 선생이 "너희가 성불(成佛)해야 극락세계 간다."라고 말했는데 불(佛)자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은 이를 성(成)자인 고로 부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영적 과일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뜻이 성경이나 불경에는 써어 있지만 인생들이 이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람의 주체영이 마귀인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 의식이 마귀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그냥 꾸며서 하는 말로 들을 수 있는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고 써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라고 했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고로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원죄요, 원죄가 선악과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헤와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에는 써어 있는데, 아담과 헤와가 먹은 선악과가 무엇인 줄을 오늘날 종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죄가 뭘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써어 있는 고로 영적 과일입니다. 선악과가 영적 과일이면 영이라는 것인데 영은 곧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선악과를 먹고 죽은 고로 죽이는 신인 것입니다. 죽이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고로 마귀의 신이 선악과요, 마귀의 신이 곧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가리켜서 마귀중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죄가 마귀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고로 종교가 아니요, 죄의 본질을 모르는 고로 죄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 자체가 마귀인 고로 나



구세주 조희성님

는 의식이 욕심부릴 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죄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써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현재 너희는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을 되어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고 불경에는 "불심을 품어라."라고 했는데 불심을 품으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무슨 말이나 하면,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소리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되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 고로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부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되어야, 하는 말인 것인데 오늘날 종교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진정한 의미

불경에는 사람더러 전부 부처님이 되라고 했는데, 왜 그러나 하면 그 옛날에 사람이 부처님이었다던 고로 부처님으

로 다시 되어 부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아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고로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고 극락세계가 되는 천당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말을 했지만, 오늘날 종교들은 언제가 말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끝(末)자, 인간 세(世)자인 고로 인간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 때 이 인간세상이 없어지고, 이 인간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000년 전에 극락세계 천당이 이루어졌지만, 마귀가 그 천당과 극락세계를 점령해가지고 마귀니 세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성경이나 불경에는 똑바로 써어 있는데도 오늘날 아담과 헤와를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짓말이 성경에 써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전부 인간의 조상이 흠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흠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다시 흠을 빚어서 아담과 헤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써어 있는데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고로 짝이 없는 말은 마귀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헤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그 선악과가 죽이는 영인 마귀의 영인 고로 마귀 영이 아담과 헤와 핏속에 있고 아담과 헤와의 핏속에 있었던 마귀가 그 후손들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나라는 의식이 욕심부리고, 욕심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로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영이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학문의 근본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학문은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아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학문을 논할 수 있고 죽지 않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학문이 없었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는 영생의 학문이 나오면 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요 생명이 곧 하나님

성경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신이라고 해요? 성경에 써어 있는데도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전부 그냥 사람이라고 그립니다. 신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말이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잘못된 학문자에게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틀림

없이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성경에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면 영이 바로 신입니다. 사람의 주인이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 사람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주인이니까 사람이 신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해도 사람이 신이라고 똑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지옥 가고 천당 간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사람이 죽을 때에 몸만 죽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생명이 죽어야 몸이 죽어요, 생명이 살아 있는데 몸이 죽어요? 생명이 죽어야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리적인 말이요, 이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생명이 곧 하나님입니다. 불경학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입니다. 생령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 써어 있고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령은 피다." 하는 것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써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곧 생명이요"라고 써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령은 사람의 핏속에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아남디까? 피를 반드시 수혈해주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술할 때에도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수혈하면서 수술해야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지 피를 수혈하지 않고 수술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곧 생명이요, 생령이 곧 피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 비진리의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2) 성막 중심의 40년 광야생활

(지난호에 이어서)
이같이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와 반제와 화목제를 마친 후,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곧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반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경이로운 그 광경을 보고, 큰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대제사장 아론은 성소에 모셔져 있는 금향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을 성소로 옮겨 제자리에 둔 다음, 두 손 가득히 향기로운 향가루를 가득 떠서 금향단의 숯불에 피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성소에 함부로 출입하였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대제사장 아론을 앞세우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도 모르게 성소를 출입하였고 심지어 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금향단을 함부로 다루는 부정(不淨)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금향단 안에는 하나님의 불로 향이 피고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에 속한 불을 가져다가 금향단에다가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세상 불은 음양의 속

《6장 40년의 광야생활》

(12) 성막 중심의 40년 광야생활



마귀의 불이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덮치다 제임스 티소(James Tissot, 1896-1902), 성경 삽화 'The Two Priests Are Destroyed.'

성을 지닌 마귀의 불입니다. 마귀의 불은 하나님의 불과 합쳐질 수 없는 불입니다. 금향단에 쏟아 부었던 마귀의 불은 용수철 튀듯이 튀어 오르더니, 곧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덮쳤습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큰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하셨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를 대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의 시중을 들게 하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돕도록 하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느니라."



떡상을 비추는 일곱 등잔

대제사장 아론은 둘째 장막의 지성소에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둘째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첫째 장막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막의 성소에는 감람유로 켜 둔 일곱 등잔이 있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정금으로 꽃받침과 꽃을 장식한 일곱 등잔은 진설병상 위에 있는 열두 개의 떡을 날마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첫째 장막에 있는 금향단의 향을 피워서 그 향연(香煙)으로 지성소(둘째 장막)의 언약궤(법궤) 위에 있는 영광스런 그룹을 가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금향단의 귀퉁이 네 뿔들에 두루 바른 후,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그룹(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룹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이렇게 하여 성소가 성결하게 되고 아론과 그 자신의 제사장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씻기는 예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안젤라